

1호분



1호분은 1-1, 1-2, 1-3호가 연결된 고분으로 봉분 전체 규모는 길이 22m, 너비 11.4m, 높이 7.6m 정도이다. 이 중 1-1호와 1-2호는 주부곽을 '11'자 형태로 배치하였으며 주부곽 모두 세장방형의 수혈식 석곽으로 축조되었다.

1-1호분은 수혈식석곽으로 주곽의 규모는 길이 610cm, 너비 84cm, 깊이 110cm 정도이고 부곽의 규모는 길이 480cm, 너비 77cm, 깊이 110cm 정도이다.

1호분의 주부곽에는 4~7매의 개석이 확인되었다. 부곽은 주곽의 북쪽에 위치하며, 바닥의 높이가 주곽보다 80cm 정도 높다.

석곽의 벽석을 축조할 때 석재들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점토 반죽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1호분에서는 총 361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유개고배, 연질옹, 발형기대, 단정호 등 다양한 종류의 토기와 철기류가 주를 이룬다. 그 외에도 은제관모장식, 금동제 귀걸이 등의 장신구도 출토되었다.

TIP



주곽?

한 무덤 안의 여러 곽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인물의 주곽을 넣는 곽

· 장방형 : 직사각형을 말한다.

· 개 석 : 무덤을 조성할 때 석실 위에 덮는 한 쪽이나 두 쪽으로 된 방형의 석재, 혹은 비석 등을 세울 때 위에 지붕형태로 만들어 그 위에 엮는 돌

부곽?

주곽에 딸려 있어 대개 죽은 사람의 장식하거나 사후세계에서 사용할 물건들을 넣어두는 곳

56호분, 58호분



56호분, 58호분은 봉분은 적석분이고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으로 이루어진 적석석곽분이다. 횡타원형의 적석 봉분 내에 '11'자 형태로 배치된 주·부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으로 딸린 무덤이 배치되어 있다.

2019년 대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40년 만에 재발굴된 56호분에서는 매장분(묘) 4기(매장시설 5기)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또 56호분에 인접한 58호분의 발굴조사에서는 봉분의 축조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구획석열이 확인되었다.

무덤의 내부에서는 긴목항아리, 대부호, 굽다리접시, 개, 연질옹 등의 토기류와 철부, 철촉 등 금속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새롭게 조사된 58호분의 내부에서는 은제환두(칼손잡이 끝의 둥근 부분)와 은장병부(은장식 손잡이)를 가진 대도(큰 칼) 1점이 출토되었으며, 은장성형금구(은장식 별모양 말 안장·띠 꾸미개) 25점이 'U'자상으로 출토되었다.

고분의 조성시기는 출토된 토기류의 속성과 특징으로 보아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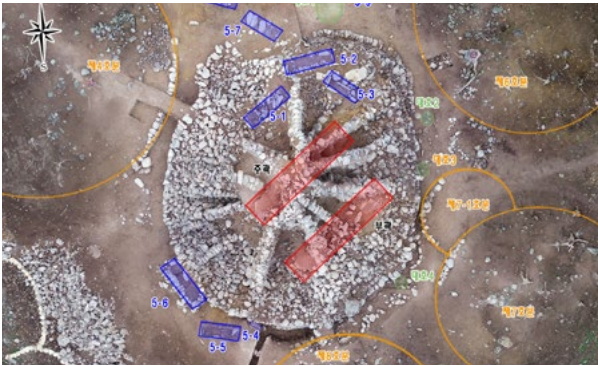


적석석곽분이란?

신라의 대표적 고분 양식인 적석목곽분과 달리 지면 아래 구멍을 파고 돌 몇개를 조성한 뒤 돌을 쌓아 올려 봉분을 만드는 형태이다.

· 봉분 : 흙더미를 쌓아올려 만든 둥근 모양의 무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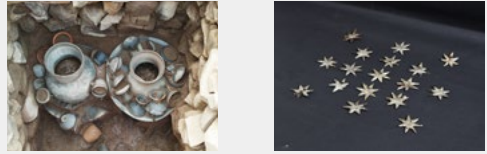
5호분



5호분은 발굴 및 복원정비가 완료된 1호분의 동쪽으로 약 30m 정도 떨어져서 위치한다. 남북방향으로 긴 평면 타원형이고 호석을 기준으로 한 봉분의 규모는 장경 16m, 단경 14.5m, 잔존높이 4.5~6.0m 정도이다.

5호분의 적석 봉토 내부에서는 석축 형태의 구획석열 14개소가 확인되었는데 고분의 가장자리에서 중앙부를 향해 방사상으로 구축되었다. 주로 외줄형태로 한쪽 면을 맞추었으며, 그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구획석열은 매장주체부의 밀봉층 상면에서부터 구축되었으며, 최대 높이는 2.5m 정도이다. 구획석열 사이에는 대체로 크고 작은 할석(쟁돌)을 삐곡하게 채워 대구 구암동고분군만의 독창적인 적석봉분을 이루고 있다.

한편 5호분에는 덧댄 무덤을 포함하여 소형급 고분 8기가 확인되었는데 덧댄 무덤들은 5호분의 가장자리를 굴착하여 매장주체부를 축조하였으며, 그 중 별도의 호석을 감싸 묘역을 마련한 것도 있다. 내부구조는 대부분 단곽의 수혈식석곽이며 제5-4호는 옹관 구조이다.



대구 구암동고분군은 팔거리 집단의 수장무덤이다.

대구 구암동고분군은 긴목항아리와 굽다리접시 등 삼국시대의 다양한 토기류를 비롯하여 은제 관모장식, 은제 허리띠, 금제 귀걸이 등 신라의 지역 최고 수장묘에서 확인되는 유물들이 출토되어 5~6세기 팔거리평야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신라 지역 세력(팔거리 집단)의 수장층 무덤으로 추정된다.

2019년~2020년에 실시한 56, 58호분의 발굴조사에서는 호석의 정확한 범위와 평면형태, 구획석열을 통한 봉분의 축조 방식 등이 확인되었으며, 주부곽 외에도 매장곽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대구 구암동고분군은 봉분의 근접과 연결방식 및 주부곽식 구조를 보이는 점에서 신라 고분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다른 신라·가야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적석석곽분의 축조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고대사와 고분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TIP



· 관모 :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미적 감각을 살리고 계급의 표시를 겸하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실용적인 의미에서 착용하였으나, 이후 장식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가 첨가되면서 의례, 계급, 상징을 표시하게 되었다.

대구 구암동고분군 56호분 발굴과 그 기록

Q

56호분 최초 발굴 계기와 발굴된 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A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으나 이렇다 할 보존과 관리없이 수십 년이 흘렀다. 이후 1975년 4월 5일 식목일 행사로 기념식수를 실시하던 중 당시 경상북도지사가 도굴 후 방치된 고분들을 발견하였고 그 학술적 가치를 확인·보존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굴하게 되었다.

당시 56호분의 본분에서는 다량의 토기류, 마구와 무기류를 비롯한 약간의 철기도 출토되었다. 하지만 북분의 경우 정식 발굴 이전 도굴이 심하여 출토유물이 거의 없다. 출토된 토기 중 특별한 형태의 토기가 있는데, 바로 부리토기(注口土器)이다.

Q

56호분의 재발굴 조사와 기록화 사업에 대하여?

A

56호분의 최초 발굴 이후 2019년 대구 북구청에서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발굴을 실시하였다. 재발굴 조사에서는 56호분의 본분과 북분의 호석 범위, 규모, 형태를 정확하게 밝혀내 그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1점의 다양한 유물들이 추가로 출토되었는데 특히 붉은색의 원통형 유리구슬이 장식된 금동제 귀걸이 1쌍이 주목된다.

1975년 발굴조사 당시 생산된 56호분의 발굴기록은 아날로그 기록으로 많은 자료를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기록화 사업을 통해 미보고된 자료에 대해 충분한 기록 보고를 진행하고 기존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추후 북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북쪽에서 바라본 대구 구암동고분군 56호분 발굴 전 상태



북쪽에서 바라본 대구 구암동고분군 56호분 발굴 전경



대구 구암동고분군 56호분 출토 부리토기



대구 구암동고분군 56호분 재발굴 시 출토된 금동제 귀걸이



대구 구암동고분군 56호분 본분 개석 제거 작업



대구 구암동고분군 56호분 본분 발굴 후 전경



대구 구암동고분군 56호분 재발굴조사 후 전경

대구 팔거산성(大邱 八莸山城)



대구 팔거산성(大邱 八莸山城)은 금호강이 내려다 보이는 함지산 정상부에 축조 되어 있다. 함지산은 해발287.7m 높이의 산으로 북동쪽으로는 도덕산과 팔공산에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금호강까지 이어지는 능선이 뻗어 있다. 산성에서는 금호강 너머의 대구 시내가 한눈에 조망된다.

산성은 함지산의 정상부를 돌아가며 축조된 퇴피식 산성으로 성벽은 급경사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성하였다.

성안은 전체적으로 동고서저, 남고북저의 소쿠리형을 이루며 서문 쪽에 평탄면의 대지가 만들어져 있다.

산성의 남북 길이는 약 370m, 동서 길이는 200m로서 남북이 약간 긴 장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성벽의 총 길이는 1,136.8m이며, 성안의 면적은 55,101㎡이다. 성벽은 동·북·남쪽은 토석혼축의 편축법으로 축조하였고 서쪽은 다듬지 않은 산돌로 쌓았다. 성벽의 높이는 밖에서 볼 때 동·북·남쪽이 5m 정도이고 서문지 일대는 15m 정도에 이른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서는 목조집수지가 확인되었고 그 내부에서는 목간 16점이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독특한 성벽의 구조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3년 국가지정유산(사적)으로 승격 지정되었다.

※목간(木簡) : 정보 전달을 위해 나무 표면에 글자를 새기거나 쓴 유물

· 퇴피식산성 : 봉우리들을 둘러싸아 테를 두른 것처럼 성을 축조한 것으로 산 정상중심으로 하여 능선을 거의 수평으로 하여 둘러싼 형태이다.

· 편축법 : 외벽만 돌로 쌓고 안쪽은 흙으로 채우는 방법
· 토석혼축 : 흙과 돌을 섞어 쌓는 방식

TIP



탐방길 코스 안내

- 자율 탐방** 탐방안내소 해설 듣기 후 자율탐방
- 누리길** 탐방안내소 → 1호분 → 56, 58호분 → 함지고(해산) 1.6km
- 1호분길** 탐방안내소 → 1호분 → 탐방안내소
- 팔거산성길** 탐방안내소 → 팔각정 → 팔거산성(서문) → 탐방안내소 복귀 또는 자율탐방

※코스는 발굴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길



- 자카용 이용(주차안내)**
 - 운암지 수변공원 입구 운암지 공영주차장(구암동 615-13) 주차 → 운암지 수변공원 방향으로 도보 5분
- 복구청**
 - 지하철 : 북구청역(3호선) → 칠곡운암역(3호선) 하차 → 1번 출구 → 도보 20분 [45분 소요]
 - 버스 : 북대구세무서앞 939 승차 → 운암지공원2 하차 → 도보 6분 [45분 소요]
 - 북구청앞 708 승차 → 칠곡청구타운건너 하차 → 도보 11분 [40분 소요]
 - 북침산치안센터앞 719 승차 → 칠곡청구타운건너 하차 → 도보 11분 [45분 소요]
- 동대구터미널(복합환승센터)**
 - 지하철 : 동대구역(1호선) → 명덕역(3호선) → 칠곡운암역(3호선) 하차 → 1번 출구 → 도보 20분 [1시간 10분 소요]
 - 버스 :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앞 937 승차 → 칠곡화성타운앞1 하차 → 도보 13분 [1시간소요]
- 서대구역**
 - 버스 : 서대구역(남측)1 칠곡6 승차 → 칠곡2차영남타운건너 하차 → 도보 13분 [1시간 소요]

탐방해설 이용 안내

- 일반해설**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점심시간 : 12 ~ 13시
 - 내용 : 탐방안내소에서 듣는 구암동고분군 · 팔거산성 이야기
 - 방법 : 언제든, 누구나, 예약 없이 가능
- 탐방해설**
 - 탐방신청 : 탐방 희망일 일주일 전 사전예약 필수(2인 이상 가능)
 - 전화예약 : 구암동고분군 · 팔거산성 탐방안내소 053-325-2344
 - 북구 관광과 053-665-2342~4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설 · 추석 명절기간

해설 따라 길 따라 대구 구암동고분군

Ancient Tombs in Guam-dong, Daegu

문화탐방 Go! Go!



구암동고분군 VR 체험



※체험문의 : 053)325-2344 탐방안내소

대구 구암동고분군 이야기



대구 구암동고분군은?

대구 구암동고분군(大邱 鳩岩洞古墳群)은 함지산의 산록에 입지하여 금호강의 갈래인 팔거천이 흐르는 팔거평야를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다.

고분군이 분포하는 능선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경사가 심한 편이다.

구릉의 능선 위에는 대형분이, 경사면 일대에는 소형분이 입지하여 총 379기가 분포하고 있다.

신라 · 가야 고분에서 무덤 구조가 특이한 적석석곽분!

대구 구암동고분군의 특징은 첫째, 봉분을 적석으로 만들고 매장주체부는 석곽으로 축조한 적석석곽분이라는 특이한 구조가 확인된다.

둘째, 한 봉분 내에 여러 매장주체부가 축조되는 연결방식의 축조가 확인된다.

셋째, 매장주체부는 수혈식 석곽으로 주곽과 부곽이 '11' 자 형태를 이루는 양상이 확인된다.



수혈식 석곽이란?

돌을 사용하여 위에서부터 주검을 안치한 매장이다. 한반도에 수혈식석곽이 조성된 시기는 4세기 후반부터이고, 영남의 신라 · 가야지역에 집중 분포하였다. 한반도의 수혈식석곽은 돌을 사용하여 매장주체시설을 만드는 정보를 수용하여 앞 시기의 모제인 목곽묘의 목재를 교체하여 조성되었다.